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이태섭(인제대학교 통일학부)

1. 머리말

1970년대 북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김정일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1961년 7월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여 1964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당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74년 2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유일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이후 김정일은 당·정·군 등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자신의 후계 체제를 확고히 구축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은 1970년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였던 것이다. 그런 만큼 1970년 북한 사회의 변화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과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또 1970년대에 있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 과정은 곧 북한의 독특한 사회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수령체제’(유일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수령체제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라는 이름으로, 박금철과 이효순 등 갑산파의 도전을 일소한 1967년 5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직접적이

고도 결정적인 계기로 하여 공식 확립되었다.¹⁾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유일적인 영도 밑에 혁명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²⁾ 다시 말해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³⁾ 그것은 수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상적 통일 단결이었으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조직적 통일 단결이었다.

김일성에게 있어 통일 단결은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 동력”이자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되었으며,⁴⁾ 이러한 통일 단결의 정치는 북한 정치가 추구해 온 핵심이라 할 만하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은 1967년 이후 북한 정치가 추구해 온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로서, “당 건설과 활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규정되었던 것이다.⁵⁾

1) 다른 공산 체제와 구별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체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수령체제는 1950~1960년대 북한식의 독특한 사회주의 발전 전략의 역사적 귀결로서 성립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태성,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 들녘, 2001) 참조.

2) 김국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 원칙”, 『근로자』, 5호(1970), 39쪽.

3) 강복만, “당원의 선봉적 역할”, 『근로자』, 6호(1967), 26쪽.

4)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 10. 5),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366~367쪽.

5) 편집국,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근로자』, 4호(1968), 5쪽.

1970년대 김정일은 이러한 북한의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후계체제도 함께 구축해 나갔으며, 따라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과정은 곧 수령체제의 제도적 확립·완성 과정이기도 하였다. 물론 이 과정은 북한 사회체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으며,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의 ‘주체 노선’이 이데올로기, 조직, 리더십, 권력 등의 측면에서 더욱 발전·심화되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과정을 그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되, 그것을 단순히 권력적 현상으로부터 파악하는 기존의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⁶⁾ 북한식 사회주의의 발전 목표와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특히 당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였던 수령체제의 제도적 완성 과정과 그에 따른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 양상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당·정·군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 확립 과정을 이데올로기·조직·리더십의 측면에서 한번 개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북한의 공간(公刊) 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북한의 문헌 조사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자 한다.

6) 197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빈약한 실정이며, 그것도 대부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단순히 권력적 현상으로부터 파악하여 김정일의 권력 장악 과정에만 치중하여 분석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 1970년대 북한 사회의 발전 목표와의 연관성 속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과정을 분석한 연구로는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 정치적 기원 : 1967~1982”(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가 있다.

2. 사상의 지도자로서의 김정일

단결의 정치로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북한의 핵심 수단은 사상적 통제(사상성), 조직적 통제(조직성), 규범적 통제(규율성)였다. 1967년 5월 갑산파 사건을 계기로 당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김정일 역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당 사상사업의 총적 방향”으로 규정하고,⁷⁾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갔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김정일의 노력은 무엇보다 먼저 사상성 강화를 위해 당 사상사업을 혁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화하는 데 기본을 두고 가장 강력한 사상교양(선전선동) 수단의 하나인 문학예술 부문에 자신의 지도력을 집중했다.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유일사상체계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해 혁명적 수령관·수령론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그 핵심 수단이 바로 ‘혁명전통’의 전면적인 계승 발전과 그 상징화·신화화였다.

즉 문학예술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는 혁명전통의 신화화를 통해 수령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학예술의 혁명전통화를 통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었다. 아울러 김일성의 노작이 대대적으로 출판 보급되고, 혁명전통에 대한 교양사업과 함께 김일성의 주체사상, 유일사상에 대한 사상교양사업도 더욱 강화되었다. 김정일은 방송 등 출판 보도 분야에서도 수령에 대한 선전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

7) 김정일, “문학예술 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1967. 5. 30),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24쪽.

였다.⁸⁾

김정일의 주도 하에 혁명전통의 상징화도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 전역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기타 거대 기념물 등 혁명전통과 김일성을 상징하는 각종 조형물이 대대적으로 건립되었다. 김일성의 현지도도를 받은 중요 단위들에는 김일성의 현지도 교시판이 세워졌다. 김일성에 무한히 충실했던 항일 빨치산들에 대한 영웅화 작업도 진행되었다. 곳곳에 그들의 동상이 세워지고, 1968년에는 그들에 대한 영웅 칭호가 수여되었다. 수령체제는 항일 빨치산 출신과 그 가족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⁹⁾

이 모든 것은 혁명전통의 상징화·신화화를 통해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신격화하고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해 1974년부터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북한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였다.¹⁰⁾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작업도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었다.¹¹⁾ 수령의 권위 절대화·신격화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핵심 과제였던 것이다. 특히 1972년 보천보 전투 승리 35주년 기념행사를 김정일이 주도하였는데, 이것은 김정일이 혁명전통의 계승자임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다.¹²⁾

8) 김정일, “방송은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다”(1968. 3. 2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1권, 43쪽.

9) 1972년 12월에 개정된 북한의 신헌법은 제61조에서 “혁명 투사, 혁명 련사 가족, 애국 련사 가족, 인민군 후방 가족, 영예 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평양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 력력』(평양 : 평양출판사, 1996), 52쪽.

11) 김정일, “4·15문학창작단을 내올 데 대하여”(1967. 6. 20),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49쪽.

12)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서울 : 중앙일보사, 1994), 91쪽.

그런데 북한에서 혁명전통의 계승 발전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기 위한 근본 요구”로 인식되었다.¹³⁾ 다시 말해 혁명전통의 계승 발전은 대를 이은 혁명위업 계승의 핵심 내용이었으며, 따라서 수령의 혁명 위업 계승은 후계자에 의한 혁명전통의 계승 발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다.¹⁴⁾ 요컨대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혁명전통의 계승 발전은 수령체제를 확립하고 후계체제를 정통화하는 양대 수레바퀴였던 것이다.¹⁵⁾ 따라서 당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라는 북한의 국가적 목표와 관련하여, 수령의 권위 절대화·신격화와 아울러 특히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서 보여준 김정일의 정치적·사상적 지도력은 항일 빨치산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¹⁶⁾ 김정일은 1973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 당 선전선동부장 겸 선전비서에 임명되고,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마침내 김일성의 유일 후계자로 추대되었다.¹⁷⁾ 이후 김

13) 편집국,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는 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본분”, 『근로자』, 1호(1977), 20쪽.

14)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수령의 혁명 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과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하나의 통일적 과정을 이루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 위업은 수령에 의해 창시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때 성과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고 한다. 편집국,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 노선”, 『근로자』, 5호(1977), 15쪽.

15) 스키 마사유키,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131쪽.

16) 김일성은 항일 혁명 투사들이 김정일을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웠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했다는 것은 곧 군대가 그를 민족의 영수로 내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310쪽.

17) 그런데 이러한 후계자 추대를 문건으로 공식화한 것은 1975년 2월 당중앙

정일 후계체제는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김정일이 조직비서 겸 사상비서로 선출된 1973년 9월부터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은 사상(선전선동부)과 조직(조직지도부)을 양대 축으로 하여 우선 당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지도력을 구축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당 조직을 통해 국가기관과 군대로 자신의 지도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사상적 지도와 통제를 앞세우면서 조직적 지도와 통제를 결합해 나가는 방식이었으며, 당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 구축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규율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정일의 당권장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1970년대 초 권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다. 먼저 북한은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국가 주석제를 신설하여 국가 활동 전반에 대한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중앙인민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국가기관에 대한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 사업은 수령이 맡고, 당 사업은 후계자가 맡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또 북한은 1970년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비서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종래 비서국은 정책 집행 기능 밖에 없었으나, 이제 비서국은 간부 문제, 대내 문제 및 그 밖의 당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1973년 9월 이후 김정일로 하여금 비서국을 통해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위원회 제5기 제9차 전원회의였다고 한다.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111~112쪽 참조;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 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105쪽.

되었다.

당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 구축은 역시 당 사상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김정일은 후계자로 추대된 직후인 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를 조직하고, 여기서 김일성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과 그에 의해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고 정식화한 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주체사상화)’를¹⁸⁾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고 당 사상사업의 기본 임무로 규정하였다.¹⁹⁾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진전시키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여기서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형이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인간형을 말한다.²¹⁾ 당시 김정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대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혁명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전당의 주체사상화 방침을 제시하였다.²²⁾ 김정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무엇

18) ‘김일성주의’는 북한의 공식 문헌에 쓰이지 않는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대신 쓰이고 있다.

19)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4. 2. 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2~3쪽.

20)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 건설 평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89~90쪽 참조.

21) 리상걸, 『주체의 당건설 이론의 전면적 발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77쪽.

22) 리찬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 위업”, 『근로자』, 2호(1977), 23쪽.

보다 먼저, 수령체제를 작동시키는 핵심기구로서 북한의 국가, 사회, 군대를 유일적으로 지도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기구인²³⁾ 조선로동당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았던 것이다.²⁴⁾

전당의 주체사상화 방침과 관련, 먼저 김정일은 당 사상사업에서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당 사상사업은 유일관리제이며, 당 사상사업은 당의 유일적 지도 밑에 움직이며, 당의 의도와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⁵⁾ 사상사업의 유일관리제란 내용의 유일성과 방법의 창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사업의 내용에서는 창조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당 사상사업에 대한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규정되었다.²⁶⁾

또 김정일은 1974년 4월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새롭게 발표하고, 이 원칙의 재접수·재토의 사업을 1974~1976년 사이에 대사업전의 방식으로 전당적으로 조직을 진행하였다.²⁷⁾ 이 10대 원칙에서 김정일은 수령을 절대화하고 수령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화·신조화하고 수령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 요구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 원칙은 유일지도체제 확립

23)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 역사비평사, 2000), 254~255쪽.

24) 편집국,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 나가는 전투적인 당”, 『근로자』, 9호(1975), 19쪽.

25)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4. 2. 19), 51~52쪽.

26) 편집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 위업”, 『근로자』, 4호(1974), 24쪽.

27)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477~478쪽 참조.

과 당중앙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김일성과 똑같이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 원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방침과 함께 유일사상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²⁸⁾ 다시 말해 그것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절대화함으로써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절대화하고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령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충실해야 하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충실한 것은 곧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논리로써,²⁹⁾ 결국은 “수령에 대한 충성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⁰⁾

또 김정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상과 이론과 방법의 항일 혁명전통에 전면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고, 19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사회생활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지도하였다.³¹⁾ 그것은 바로 혁명전통의 일상화·생활화였다.

나아가 김정일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수령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해 나갔는데, 이것은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³²⁾ 김정일의 사상 이론은 사상 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론에 기초하고 있는데,³³⁾ 그 핵심은 수령론에 있다. 수령의 절대화·신

28) 김정일,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 8. 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170 ~ 171쪽 참조.

29) 편집국,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 다하는 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 『근로자』, 5·6호(1974), 16쪽.

30) 김시학,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닌 고상한 사상 정신적 품모”, 『근로자』, 4호(1980), 28쪽.

31) 조총련, 『김정일 장군 력사』(동경: 조총련, 1994), 42쪽.

32)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 정치적 기원: 1967~1982”, 50~51쪽 참조.

33) 편집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격화를 위한 혁명적 수령관과 수령론의 확립은 김정일의 사상 이론 작업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이다.³⁴⁾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신헌법에 북한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었다.

3. 조직의 지도자로서의 김정일

김정일은 사상의 지도자로서 당 사상사업에 대한 자신의 유일적 지도력을 구축한 데 이어 조직의 지도자로서 당 조직사업에 대한 자신의 유일적 지도력 구축을 시도하였다. 김정일은 당 사업 전반에 대한 자신의 유일적 지도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 사업체계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한편,³⁵⁾ 자신의 지도 이론과 지도 방법을 수립하고 이를 각종 지도서와 직능서로 작성 배포하고, 각종 회의와 강습을 통해 이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도력을 구축해 나갔다. 그리고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는 곧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³⁶⁾

이에 따라 모든 것을 후계자에게 집중시키고 그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당 사업체계가 후계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³⁷⁾ 특히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위한 핵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자”, 『근로자』, 7호(1974), 5쪽.

- 34) 북한에서 혁명적 수령론은 주체사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 완성시킨 근본 바탕을 이루는 가장 탁월한 철학적 발견으로 설명되고 있다. 리진규, 『21세기-김정일 시대』(평양: 평양출판사, 1995), 65쪽.
- 35) 편집국,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 나가는 전투적인 당”(1975. 9), 19쪽.
- 36) 리오송,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근로자』, 2호(1976), 49쪽.

심 기구로서 당 조직지도부가 개편 강화되었다. 김정일은 이 조직지도부를 통해 자신의 유일적 지도를 전당, 전국, 전국에 철저히 관철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당·정·군 전반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간부사업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종래와 달리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당 조직지도부에 집중시킴으로써, 결국 김정일에게 인사권을 집중시킨 것이 그것이었다. 간부정책도 변화되었다. 김정일은 수령과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을 간부의 첫째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³⁸⁾ 특히 김정일 후계체제의 등장은 간부 교체를 가져왔다. 1970년대 중반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해 당·정·군 전반에 걸쳐 김정일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간부 교체가 있었던 것이다.³⁹⁾ 그 결과 당 대열은 수령과 당중앙에 충실한 사람들로 더욱 튼튼히 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⁴⁰⁾ 이러한 간부 교체 과정은 노·장·청 3결합 방식의 간부정책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를 가져왔으며, 이들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간부정책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충성심뿐만 아니라 선진 과학기술 지식으로 무장된 실무 능력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김정일은 열성 하나만

37) 당 사업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당 조직들의 당 내부 사업 절차와 질서, 체도를 정연하게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남복, “강철같은 규율을 세우는 것은 당의 혁명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 과업”, 『근로자』, 9호(1975), 38쪽.

38) 김정일,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 8. 2), 186쪽.

39) 강현수,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근로자』, 4호(1975), 37쪽 ; 편집국,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알곡 8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서자”, 『근로자』, 2호(1975), 15쪽.

40) 편집국,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시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근로자』, 10호(1975), 9쪽.

으로는 부족하며 열성에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간부들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해 전당의 간부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당 간부화 방침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모든 간부들로 하여금 매일 2시간 학습, 토요일학습, 수요강습, 강연회 등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고, 당 조직들은 계획적으로 학습과제를 부과하고 그 학습 정형을 매일 엄격히 총화하도록 하는 학습체계를 수립하고, 학습을 생활화·습성화·정규화하도록 지도하였다.⁴¹⁾

한편, 사상성과 아울러 조직성과 규율성 강화를 위해 당 조직생활과 당 규율도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에서 사상성 강화는 무엇보다 조직성 강화를 통해 추구되며, 규율성 강화도 조직성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조직성 강화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조직성 강화는 1970년 전사회의 완전한 조직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성의 입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 데 따라 사회는 더욱 조직화”된다는 것이었다.⁴²⁾ 물론 그것은 규범화, 즉 규율성 강화를 통해 추구되었다.

김일성의 입장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군대활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엄격한 질서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³⁾ 이에 따라 1970년대 북한은 엄격한 규범과 규정에 따라 경제활동과 조직정치활동을 포함해 개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사회성원들의 모든 활동과 생활을 철저하게 조직화·규범화·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전 사회의 완전한 조직화

41) 리재일, “간부들은 혁명적 학습 기풍을 철저히 세워 정렬적인 독학가가 되자”, 『근로자』, 7호(1974), 44~47쪽.

42) 김일성,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 정권의 과업”(1982. 4), 『김일성 저작선집』, 제9권, 41쪽.

43) 김일성,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1969. 6. 30), 『김일성 저작집』, 제24권, 8~14쪽.

로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을 반영한 새로운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이란 전체 인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세우고,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세우며 그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다.⁴⁴⁾

이에 따라 김정일 역시 조직규율강화를 통해 조직생활을 절대화하고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당 조직규율강화와 당 조직생활강화를 위해 김정일은 거의 모든 단위에 당 생활지도기구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각 단위별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새로운 강력한 당 생활총화체계를 수립하고 당 생활의 정규화·규범화·제도화를 추진하였다.⁴⁵⁾ 새로운 당 생활총화체계란 종래 1개월에 한 번 하던 것을, 김정일이 이를 바꿔 새롭게 수립한 ‘2일 및 주 당 생활총화체계’를 말하는 것이었다.⁴⁶⁾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생활총화제도는 1974년에 전당적으로 철저히 확립되었다.⁴⁷⁾ 당 생활(조직생활) 정규화 방침에 따라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전혀 빈틈이 없는 꼭 짜인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44) 김량제, “사회주의 생활 양식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 방식”, 『근로자』, 3호(1979), 32~34쪽.

45) 여기서 당 생활 정규화란, 당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생활하고 사업하게 하는 적극적인 통제 방법을 의미한다. 현명준, “전당을 간부화하는 것은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의 필수적 요구”, 『근로자』, 1호(1975), 40쪽.

46) 물론 이것은 모든 단위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문학예술이나 외교 계통은 2일 당 생활 총화를 하고, 그 밖의 단위는 3일, 5일, 1주일 혹은 10일 당 생활 총화 제도를 수립하였다.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 생활 총화 제도를 세울 데 대하여”(1973. 8. 2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56쪽.

4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32』(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208~209쪽 참조.

또 규율성 강화를 위해 김정일은 종래와 달리 모든 사업체계와 활동을 표준화된 지도서 혹은 직능서의 형태로 규범화·제도화하여 간부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며 비조직적 행동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조직생활의 모든 절차와 내용도 세세히 규정되었다. 표준화된 지도서 혹은 직능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그에 따라 사업하는 질서와 절차를 수립하고 그 실천 여부를 검열하는 것은 김정일의 주요한 사업방법의 하나였다. 이것은 당 사업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⁴⁸⁾

또 김정일은 간부들에 대한 검열사업을 강화하고,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연한 지도검열사업체계를 수립하였다. 김정일은 검열사업도 검열사업지도서와 지도검열사업요강을 새로 작성 배포하는 등 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검열사업은 김정일이 내려보낸 지시와 방침, 구호, 지도서들이 어떻게 접수되고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김정일에 충실한 사람들로 간부를 교체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1973년에는 국가 정치보위부가 당, 정, 군, 그리고 기업소에까지 설치되었는데, 국가 정치보위부는 김정일 후계체제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장애요소들을 적발 제거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특히 김정일은 하부단위를 철저히 장악 통제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에서 당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 조직의 활동과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자신에게 보고하고(정보집중), 자신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정연한 사업보고 체계와 질서를 수립하고, 하부 당 조직에 내려보내는 모든 지도서와 지시는 반드시 수령과 자신의 비준을 받은 다음 내려보내도록 조치하였다.⁴⁹⁾

48) 평양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 략력』(평양 : 평양출판사, 1996), 56쪽.

49) 김정일, “당 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

김정일에 의한 보고 체계의 강화는 조직지도부 내에 소위 3線·3日 보고체계와 直報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서 3선(또는 3通)이란 당 조직계통, 행정계통, 국가보위부 계통을 의미하며, 군대에서는 당 조직계통(정치부), 참모부 계통, 군대보위부 계통을 의미한다. 직보체계는 주요 사안에 대해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말한다.⁵⁰⁾ 이러한 보고체계를 통해 김정일은 북한 전역의 실태와 움직임을 손금 보듯 철저히 파악하고 장악 통제할 수 있었으며, 1975년에 이르면 당 사업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예외 없이 김정일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기풍이 수립되었다고 한다.⁵¹⁾

또 김정일은 상급조직이 하부조직을 철저히 장악 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도와주는 사업을 결합시키는 하부지도체계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당중앙의 의도를 하부 말단에까지 신속 정확하게 침투 전달하고,⁵²⁾ 당중앙의 지도 밑에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전당에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⁵³⁾

또 김정일은 하부지도체계의 일환으로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것을 제도화하였는데, 이것은 간부들로 하여금 군중 속에 들어가는 사업을 규범화·생활화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군중노선의 제도화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으로 명명된 이 제도는 당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 사업

여”(1974. 2. 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61쪽.

50)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152쪽 참조.

51) 정필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에 맞게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 문헌”, 『근로자』, 7호(1975), 35쪽.

52) 정동익, “청산리 방법대로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살며 일하자”, 『근로자』, 3호(1976), 29쪽.

53) 문성술, “하부 지도 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당 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기본 요구”, 『근로자』, 8호(1975), 33쪽.

방법, 사무실적 사업방법, 유람식 사업방법 등 낡은 사업방법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과 도의 일군들은 한 달에 20일간 내려가 조직 정치 사업을 하고 10일간 올라와 재무장·재작전하며, 집행 단위인 군당의 일군들은 1주일에 5일간 내려가 사업하고 2일간 올라와 재무장·재작전하고 다시 내려가는 사업체계가 확립되었다.⁵⁴⁾ 이러한 군중노선의 강화는 수령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를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고 하부 말단에까지 제때에 기동성 있게 침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며,⁵⁵⁾ 또 당중앙에 절대 복종하는 체계를 지방당 조직으로까지 확장하고,⁵⁶⁾ 하부단위를 철저히 장악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었다.⁵⁷⁾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75년에 이르면 당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은 어느 정도 확고히 구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1975년 중반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당은 당 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통일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를 확고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⁵⁸⁾

특히 북한은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자 당 활동과 당 사업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선차적인 문제”로서 군대와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규율을 확립하고자 하

54) 정동익, “청산리 방법대로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살며 일하자”, 29쪽.

55) 리기순,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당 일군들의 참된 일본새”, 『근로자』, 8호(1976), 42쪽.

56) 정동익, “청산리 방법대로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살며 일하자”, 29쪽.

57) 정필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에 맞게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 문헌”, 37쪽

58) 정필선, 위의 글, 35~36쪽.

였다. 그것은 곧 당중앙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행동하는 강철같은 규율이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무조건 복종하고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전당이 한 사람 같이 움직이는 강철 같은 규율이었다.⁵⁹⁾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는 사상성 및 조직성과 아울러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규율성 강화를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의 조직규율은 1970년대 후반에 들면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전 사회적으로도 규율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조직적 통제와 아울러 규범적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었던 것이다. 1977년 2월 사회주의 법무생활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한 것이 그것이었다.⁶⁰⁾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란 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일정한 제도와 질서 밑에 통제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정규화·규범화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생활위원회는 각 도, 시, 군에까지 조직되어, 당 검열위원회와 함께 국가기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법무생활을 직접 조직 지도하는 총 책임기구가 되었다.⁶¹⁾

4. 대중운동의 지도자로서의 김정일

1974년까지 김정일은 국가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지

59) 백남북, “강철 같은 규율을 세우는 것은 당의 혁명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 과업”, 『근로자』, 9호(1975), 35~40쪽 참조.

60) 북한은 1972년 헌법 개정 이후부터 규범적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조해 왔으며, 1974년 8월에는 중앙 인민위원회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하고 법적 기능을 강화해 왔다.

61) 김약락,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 생활 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7호(1978), 27쪽.

않고 있었다. 당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도력 구축이 선결과제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국가기관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는 국가기관 내의 당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기관 내 당 조직들의 모든 활동을 조직지도부에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김정일은 국가기관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실현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1974년 하반기부터 국가기관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지도체제를 수립해 나갔다. 물론 그것은 조직지도부를 통해 자신의 당적 지도력을 국가기관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었으며,⁶²⁾ 특히 그것은 대중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국가기관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은 1974년 소위 '70일전투'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74년 북한은 인민경제계획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 여기서 김정일은 1974년 10월 당 조직을 발동해 자신이 직접 경제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70일전투를 발기하였다. 김정일은 70일전투의 관건은 “모든 당 조직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어떻게 접수하고 전투에 어떻게 달라붙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⁶³⁾ 이 전투를 모든 당 조직들이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 접수하고 실행하는지 검증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았다. 즉 그것은 김정일의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능력을 입증해 보는 기회이자 동시에, 당원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검열하는 기회였던 것이다.⁶⁴⁾ 김정일은 당 사업은 경제사업의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충실성 역시 경제사업에서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70일전투의 기본 형식은 속도전이었다. 돌격대를 편성하고 군사활동

62)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 정치적 기원 : 1967~1982”, 174~175쪽 참조.

63)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1974. 10. 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244쪽.

64) 편집국,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자”, 『근로자』, 11호(1974), 32쪽.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 속도전은 김정일식 대중운동의 대표적인 형식으로서, 그 기본 요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 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며, 그 내용적 본질은 사상전이였다.⁶⁵⁾ 즉 속도전은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김정일의 사상론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⁶⁾ 때문에 속도전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조직지도사업을 3대 구성요건으로 하면서도, 사상혁명을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웠다.⁶⁷⁾ 김정일식의 대중운동이 갖는 주요 특징의 하나는 속도전의 방침에 따라 사상개조를 확고하게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상을 앞세운 정치 우위의 경제건설방식으로 결국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 김정일은 70일전투를 수행하면서 당의 선전선동수단을 경제건설 현장에 보내 경제선동사업을 벌리게 하였는데, 이 때부터 경제선동사업은 북한의 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사업방법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경제선동사업은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킨 것으로서, 정치선전과 함께 당 사상사업의 주요한 구성 부분으로 위치지어졌다.⁶⁸⁾

70일전투는 1974년도 북한의 경제건설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0일전투는 단기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었지만,⁶⁹⁾

65) 편집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 위업”(1974. 4), 23~24쪽.

66) 편집국, “사상전은 사상분야에서의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 『근로자』, 5·6호(1974), 18쪽.

67) 럽태준, “사회주의 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자”, 『근로자』, 8호(1974), 24쪽.

68) 편집국, “경제 선동은 사회주의 대건설에로 대중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 『근로자』, 7호(1974), 17~23쪽.

69)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며, 일당 목표가 세워진

수치상의 성과 달성은 김정일의 경제 지도력과 속도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⁷⁰⁾ 70일전투가 끝난 후, 속도전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전투형식으로 규정되었다.⁷¹⁾

이러한 70일전투의 성과를 배경으로, 김정일은 1975년 중반부터 국가기관 특히 정무원에 대한 자신의 유일지도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조직지도부를 통해 정무원의 위원회·부당 위원회의 당 사업에 대한 자신의 유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²⁾ 또 김정일은 정무원 당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것이 각 위원회, 부당 위원회를 통괄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과거에 병렬적으로 존재하던 당 위원회를 하나의 질서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간부들을 김정일에게 충실한 사람들로 교체하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정규화·규범화하도록 하였다.⁷³⁾

행정경제사업의 규범화는 무엇보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한다는 것은 “생산과 경영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준칙과 사업질서를 규제한 관리 규범과 규정들을 만들고 그에 따라 모든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일치하게 움직이도록 함으

다음에는 역량을 집중하여 그것을 진공적으로 점령해 나가는 것은 김정일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 편집국, “우리 당은 불패의 위력과 영도력을 지닌 위대한 당”, 『근로자』, 2호(1980), 7쪽.

70) 70일전투의 공적으로 김정일은 1975년 2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정무원 결정으로 그의 생일인 2월 16일이 임시 휴무일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정식 휴무일이 되었다.

71) 김성태,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을 구현하고 심화 발전시킨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전투 형식”, 『근로자』, 1호(1974), 48쪽.

72) 김정일, “정무원 위원회, 부당 조직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74. 6. 10),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157쪽.

73) 편집국,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 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근로자』, 9호(1975), 8쪽 ; 편집국,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 혁명의 기치 밑에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 『근로자』, 3호(1975), 28쪽.

로써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했다.⁷⁴⁾ 다시 말해 기업관리의 정규화란 엄격한 규정과 규범에 따라 계획화, 생산지도, 설비관리, 자재공급, 노동행정, 재정관리, 후방사업 등 모든 경제활동을 규범화·제도화·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했다.⁷⁵⁾

이에 따라 1970년대 북한은 국영 기업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 재정 규정, 물자관리 규정, 설비관리 규정, 자재상사사업 규정 등 경제관리 규범과 규정을 하나하나 새로 작성해 나갔다. 이러한 규범과 규정에는 생산과 건설, 분배와 유통,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과 교육, 보건 등 제반 문화 건설사업에 필요한 활동원칙과 행동준칙들이 전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⁷⁶⁾ 지배인으로부터 직장장, 작업반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꾼들이 정확히 지켜야 할 동작규범과 부서 직능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이렇듯 정무원의 기구개편과 인사교체, 행정경제사업의 정규화는 모두 정무원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김정일의 당적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의 표현을 빌면, 1975년에 들면서 “당중앙의 영도 밑에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가 전례 없이 강화”되었던 것이다.⁷⁷⁾ 김정일은 당 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도하였다.⁷⁸⁾

74) 럽룡삼, “기업 관리의 정규화는 경제관리의 개선과 생산 정상화의 중요한 고리”, 『근로자』, 7호(1979), 47쪽.

75) 김정희, “기업 관리의 정규화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필수적 요구”, 『근로자』, 7호(1971), 45쪽; 로태석, “경제사업체제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 『근로자』, 7호(1978), 33쪽.

76) 심형일, “사회주의적 법 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5호(1977), 51쪽.

77) 강현수,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39쪽.

78) 정필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에 맞게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 문헌”, 36쪽.

여기서 당 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 데 대한 방침은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이 행정 경제사업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경제 건설에 당적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이 경제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의 모든 활동을 경제과업수행에 복종시키며 당 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했다.⁷⁹⁾

특히 1970년대 북한의 경제건설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은 70일전투와 같이 대중운동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이 그것이었다. 먼저 197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3대혁명소조운동은 북한 사회에 만연된 관료주의, 형식주의, 조직이기주의, 소극 보수성, 무책임성, 창발성 부족 등을 퇴치하기 위한 사상 투쟁적 성격을 갖고 추진되었다.⁸⁰⁾ 북한은 1970년 노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기술혁명, 특히 3대기술혁명을 6개년계획의 중심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중간단위 간부들의 관료화 경향으로 인해 이 과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⁸¹⁾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김정일은 부부장급을 비롯한 중간 간부들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⁸²⁾ 군중노선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 역시 중간단위를 거치지 않고 수령과 당의 정책이

79) 편집국, “당 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자”, 『근로자』, 3호(1977), 2쪽.

80)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70쪽.

81) 김일성, “올해 사업 총화와 다음해 사업 방향에 대하여”(1973. 12. 31), 『김일성 저작집』, 제28권, 624쪽; 김정일, “농촌 경리 부분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 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1976. 2. 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462쪽.

82) 김정일, “문화 예술부 정치국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73. 3. 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2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7), 95쪽.

곧바로 하부단위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고, 관료화된 중간단위 간부들에 대한 사상투쟁을 주요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그 초점은 기술혁명의 수행에 있었다. 즉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 핵심, 과학기술 일군, 청년 인텔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⁸³⁾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된 새로운 세대를 통해 위로부터의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⁸⁴⁾ 그리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 그 지도권을 넘겨받은 다음 이 3대혁명소조운동은 김정일의 친위대, 근위대로 활동하며,⁸⁵⁾ 김정일의 방침을 직접 수행하는 돌격대가 되었다.

때문에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중앙의 혁명적 지도를 가장 정확히 실현하는 운동”으로 평가되었다. 즉 소조원들은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철칙으로 삼고, 전국의 실태를 정확히 김정일에게 보고하고 모든 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를 구현해 나갔던 것이다.⁸⁶⁾ 결국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정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을 더욱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소조원들이 입당하고 간부로 발탁됨으로써 젊은 층으로의 세대교체를 가져오고 김정일의 지지 기반을 넓혀 주었다.

또 김정일은 1975년 11월 3대혁명을 대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3대혁명붉

8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이론』, 74쪽.

84) 1971년 6월 김일성은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 보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청년들이 생산에서 기술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타파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1971. 6. 24), 『김일성 저작집』, 제26권, 208쪽.

85) 김일성, “당, 정권 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1975. 2. 17), 『김일성 저작집』, 제29권, 95쪽.

86) 전영락,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 혁명에 대한 당의 혁명적 영도를 실현하는 위대한 운동”, 『근로자』, 4호(1976), 43~44쪽.

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김일성에 의해 발기되어 김정일에 의해 확대 발전된 대중운동이었다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처음부터 김정일이 구상하고 추진한 대중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으로, 특히 김정일에 대한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고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운동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데 따라 사업이 평가되고 영예의 붉은기가 주어졌다.⁸⁷⁾ 또 김정일은 “전쟁의 관점에서” 혁명대열을 얼마나 철저히 꾸렸는가 하는 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⁸⁸⁾

한편, 북한은 1978년부터 제2차 7개년 계획을 수행하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그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행 원칙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이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혁개방정책을 결정하자, 김정일은 1978년 12월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고 역설했다. 북한의 제2차 7개년 계획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해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그 핵심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 과학기술에 기반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북한은 “현 시대를 과학기술의 시대”로 규정하고,⁸⁹⁾ 과학기

87) 편집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근로자』, 1호(1976), 15쪽.

88) 김정일, “올해 당 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1976. 1. 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418쪽.

89) 편집국, “3대 혁명 노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3호(1978), 9쪽.

술 발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기울였다. 생산에서도 과학 기술이 요구되고, 경제운영에서도 과학적인 경영활동이 요구되었던 것이다.⁹⁰⁾ 김정일 역시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부의 요건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아울러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된 실무능력을 1970년대 전반기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였다.⁹¹⁾

특히 김정일은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발전과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들과 인텔리들의 역할 제고를 강조하는 한편, 과학자·기술자 돌격대 운동을 조직하였다. 즉 김정일은 1975년 처음으로 ‘7·1과학자·기술자 돌격대’를 조직한 데 이어, 1978년 ‘2·17과학자돌격대’, 1980년 ‘4·15기술혁신돌격대’ 등을 조직하여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이다.⁹²⁾ 이것은 생산현장에서 과학연구사업과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결합시킨 것이었다.

김정일은 또 1979년 10월부터 새로운 대중운동인 ‘숨은 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기존의 대중운동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던 데 비해, 이 운동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 역시 사상개조운동이면서 동시에 기술개조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이 운동은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⁹³⁾ 때문에 숨

90) 오형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 이론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운영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 『근로자』, 3호(1978), 47쪽.

91) 인민경제의 현대화·과학화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은 1970년대 초반 황해제철소의 전면적 자동화 사업,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 콘베이어벨트 사업, 무산광산-김책제철소 사이의 대형 장거리 정광 수송관 건설 사업, 강선 제강소와 2·8시멘트공장의 산업 텔레비전화 사업 등을 직접 지도한 데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92) 평양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 력력』, 105쪽.

93) 백재욱,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단

은 영웅들은 1970년대 후반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이른바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의 전형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특히 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로 발굴되었다.

나아가 김정일은 제2차 7개년 계획의 실행과 관련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화하고, 당 사업과 경제사업을 더욱 밀착시켜 나가도록 지도하였으며,⁹⁴⁾ 이에 따라 당 일군들에게도 높은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할 것을 요구하였다.⁹⁵⁾ 그리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당 위원회 내에 경제기관이 다시 설치되었다.

5. 군사 지도자로서의 김정일

김정일의 군사 부문에 대한 지도력 구축은 197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하반기에 군대 내 당 조직에 대한 일제 검열을 실시하였는데, 검열의 주요 기준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계를 군에서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김정일이 제시한 방침과 구호가 제대로 접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검열 총화를 통해 김정일은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군사, 정치 간부 대열을 재정비하고 군에 대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해 나갔다.

군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 역시 군대 내 당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의 군대 내 모든 당 조직은 총정치국의 지도를 받으며, 총정치

계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근로자』, 2호(1980), 51쪽.

94) 염원석, “당 사업과 경제 사업의 옹운 결합”, 『근로자』, 2호(1980), 24 ~ 30쪽 참조.

95) 백능기, “당 일군은 경제 지식과 현대 과학 기술을 알아야 한다”, 『근로자』, 5호(1978), 41쪽.

국은 당 조직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바, 김정일은 조직지도부 - 총정치국 라인을 통해 군에 대한 자신의 지도력을 구축해 나갔던 것이다. 다시 말해 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군대 안의 당 조직을 장악하고 이 군대 안의 당 조직을 통해 군 지휘계통을 장악해 들어갔던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군에 대한 지도력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75년 1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였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군대 내 당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총정치국에 대한 자신의 지도력 확립을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즉 “인민군대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는 전군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인민군대 안의 모든 간부들과 군인들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 하며 당중앙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는 군 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규율이 전군을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⁹⁶⁾

김정일은 이 담화를 통해 전군 주체사상화 방침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인민군대를 완전 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드는 것을 군 건설의 총적 임무”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군대 내에서 당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게 하고, 군인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갔다.⁹⁷⁾ 1975년 2월에 인민군 총참모장 오진우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 표시가 있었으며, 당 기관지 『근로자』는 군인들이

96) 김정일,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1975. 1. 1), 『김정일 선집』, 제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9쪽 참조.

97) 평양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 력력』, 109~110쪽.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할 것을 요구하였다.⁹⁸⁾ 또 김정일은 1975년 12월 초에 전군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추진하였다.

1975년을 지나면서 군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은 어느 정도 확고해진 듯하다. 당시 군에서 못하나 움직이는 것도 김정일의 결심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⁹⁹⁾ 1975년경부터 김정일은 군대가 보고 문건이나 비준 문건을 김일성에게 직접 올리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자신을 통하도록 보고 체계를 바꾸었다. 1975년부터 시행된 이러한 새로운 보고 체계는 김정일이 인민군대의 정보 통로를 틀어쥐는 획기적 사건이었다.¹⁰⁰⁾ 1975년에는 군 병영에 김정일의 초상화가 김일성과 나란히 부착되었다. 군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 강화는 군의 세대교체를 가져왔다. 중대장은 30~40세에서 32세 미만으로, 대대장은 40~50세에서 32~35세로, 연대장은 50~60세에서 35~40세로 연령이 대폭 낮아졌으며,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등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 2세대가 부상하였다.¹⁰¹⁾

그러나 군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 구축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듯하다. 1976년 후계체제구축의 속도에 대한 김동규 등의 문제 제기 이후, 1977년에는 오진우마저 당중앙에 대한 언급을 회피할 정도였다.¹⁰²⁾ 김동규 사건으로 군과 사법안전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모습을 감추었으며, 김정일 역시 1978년 초반까지 활동을 자제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활동 자제와 후계체제의 속도조절기간은 김일성의 적극적인

98) 편집국,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혁명의 기치 밑에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 『근로자』, 3호(1975), 28쪽.

99)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166쪽.

100) 최주환,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 장악”, 『월간WIN』, 6월호(1996), 164~165쪽 참조.

101)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 정치적 기원 : 1967~1982”, 185쪽.

102) 사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 기반 : 그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동화연구소, 1991), 46~47쪽 참조.

지원 하에 군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내부 정비기간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군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 확립은 실로 김일성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1978년 조선인민군 창건일 기존의 2월 8일에서 4월 25일로 변경하는 등 1978년을 지나면서 군에 대한 자신의 지도력을 재차 강화해 나갔다.¹⁰³⁾

당 조직을 통해 군에 대한 지도력을 구축해 나가던 이전 시기와 달리, 1979년부터 김정일은 대중운동과 아울러 군사업무에까지 보다 직접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군에서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특히 아래 단위에서 진행되었고, 이것은 군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 김정일은 1979년부터 ‘오중흙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은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명령과 당중앙 김정일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군대 내 모든 부대들에서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혁명전통 교양을 강화하였다.

또 김정일은 1979년 2월 전군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의 방법과 관련, 항일유격대식 선전선동방법을 받아들여 모든 선전과 선동을 화선식 선전, 화선식 선동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김정일은 군사조직체제와 작전지휘체제를 개편하는 문제, 군인들의 군사기술적 자질을 높이는 문제, 군대의 무장장비를 더욱 현대화하는 문제들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강하게 추진해 나갔으며, 그 결과 군의 군사기술적 준비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었다.¹⁰⁴⁾

103) 이러한 창군 기념일의 변경은 조선 인민군이 항일 혁명전통을 계승한 군대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이러한 군에 대한 혁명전통의 강화는 곧 군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 정치적 기원 : 1967~1982”, 215쪽 및 239쪽 참조.

104) 평양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 력력』, 111쪽.

1979년이 되면 1975년에 확립된 군의 보고체제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올라가는 보고문건을 선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¹⁰⁵⁾ 그리고 김일성은 1979년 12월 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제6기 제20차 전원회의에서 군에 대한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였으며,¹⁰⁶⁾ 1979년 12월 18일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당 위원회 확대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의 군 지도력 강화가 결의되었다.¹⁰⁷⁾ 이 회의를 계기로 김정일은 당 조직을 통한 군사 부문 지도에서 직접 군사를 지도하는 단계로 점차 이행하게 된다.

즉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은 당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아울러 군사적으로도 직접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1982년 4월 김일성은 군대에 대해, 후계자의 군대로서 충실성을 가질 것 요구함으로써, 군은 이제 수령의 군대이자 곧 후계자의 군대로 점차 전환되어 갔다.¹⁰⁸⁾ 그리고 1982년 6월 당 군사위원회는 김정일로 하여금 군대를 당적으로 지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군사적으로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군대 안의 보고체제와 모든 사업체제를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를 보장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¹⁰⁹⁾

105) 최주환,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 장악”, 164~165쪽 참조.

106)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9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30쪽.

107) 『로동신문』, 1979년 12월 24일.

108) 김일성, “주체의 혁명 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1982. 4. 25), 『김일성 저작집』, 제37권, 154쪽.

109)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6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66~467쪽 참조.

6. 맺음말

1970년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는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이 목표는 비록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혁명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로서 후계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가 확고히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970년대에 있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정은 곧 수령체제의 제도적 완성과정이기도 하였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수령체제는 통일 단결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인바, 따라서 수령체제의 제도적 완성 과정으로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 과정은 곧 통일단결의 계승과 그 심화 발전의 역사적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수령에서 후계자로 통일단결의 중심을 계승하고,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통일 단결의 정치는 조직사상적 지도의 유일성에 기초한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통해 보장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사상적 통제(사상성), 조직적 통제(조직성), 규범적 통제(규율성)였다. 특히 북한은 1970년대 들어 사상적 통제(사상성)와 아울러 특히 조직적 통제(조직성)와 규범적 통제(규율성)를 갈수록 강화해 나갔는데, 그것은 규범적 통제(규율성)를 강화하는 기반 위에서 조직생활과 조직적 활동을 절대화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사회활동에서부터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활동과 생활을 철저하게 조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사회의 완전한 조직화로서, 조직 사회주의의 추구였다.

1970년대 수령체제의 제도적 완성과 후계체제의 확립은 이와 같은 전 사회의 완전한 조직화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수령체제가 완성되고 후계체제가 확립되는 1970년대를 지나면서 북한 사회의 조직화 수준 역시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모든 활동과 생활은 엄격한 규범과 규율에 따라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 이와 같은 북한식 의 조직 사회주의, 전 사회의 완전한 조직화는 바로 김일성의 유일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 자신의 후계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사회의 완전한 조직화는 1970년대 김정일 후계 체제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사회체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그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만큼 1970년대 김정일의 등장에 따른 북한 체제의 변화는 오늘날의 북한 체제의 사실상의 원형이 형성된 시기라 할 만하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강복만, “당원의 선봉적 역할”, 『근로자』, 6호(1967).
 강현수,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근로자』, 4호(197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 건설 령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32』(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김국훈,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 원칙”, 『근로자』, 5호(1970).
 김량제, “사회주의 생활 양식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 방식”, 『근로자』, 3호(1979).
 김성태,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을 구현하고 심화 발전시킨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전투 형식”, 『근로자』 1호(1974).
 김시학,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닌 고상한 사상

- 정신적 풍모”, 『근로자』, 4호(1980).
- 김억락, “사회주의 범무 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 생활 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7호(1978).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 10. 5),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 ,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 정권의 과업”(1982. 4), 『김일성 저작선집』, 제9권.
- ,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1969. 6. 30), 『김일성 저작집』, 제24권.
- , “올해 사업 총화와 다음해 사업 방향에 대하여”(1973. 12. 31), 『김일성 저작집』, 제28권.
- ,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1971. 6. 24), 『김일성 저작집』, 제26권.
- , “당, 정권 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1975. 2. 17), 『김일성 저작집』, 제29권.
- , “주체의 혁명 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1982. 4. 25), 『김일성 저작집』, 제37권.
- 김정일, “문학예술 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1967. 5. 30),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방송은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다”(1968. 3. 2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1권.
- , “4·15문학창작단을 내올 데 대하여”(1967. 6. 20),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4. 2. 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 8. 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 , “당 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74. 2. 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 ,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1974. 10. 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 , “정무원 위원회, 부 당 조직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74. 6. 10),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 , “농촌 경리 부분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 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1976. 2. 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 , “올해 당 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1976. 1. 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 , “전당에 새로운 당 생활 총화 제도를 세울 데 대하여”(1973. 8. 2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문화 예술부 정치국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73. 3. 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2권.
- ,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1975. 1. 1), 『김정일 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정희, “기업 관리의 정규화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필수적 요구”, 『근로자』, 7호(1971).
- 렴룡삼, “기업 관리의 정규화는 경제관리의 개선과 생산 정상화의 중요한 고리”, 『근로자』, 7호(1979).
- 렴태준, “사회주의 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자”, 『근로자』, 8호(1974).
- 로태석, “경제사업체제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 『근로자』, 7호(1978).
- 리기순,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당 일군들의 참된 일본새”, 『근로자』, 8호(1976).
- 리상걸, 『주체의 당 건설 이론의 전면적 발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리오송,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근로자』, 2호(1976).
- 리재일, “간부들은 혁명적 학습 기풍을 철저히 세워 정렬적인 독학가가 되자”, 『근로자』, 7호(1974).
- 리진규, 『21세기-김정일시대』(평양: 평양출판사, 1995).
- 리찬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력사적 위업”, 『근로자』, 2호(1977).
- 문성술, “하부 지도 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당 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기본 요구”, 『근로자』, 8호(1975).
- 백남복, “강철 같은 규율을 세우는 것은 당의 혁명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 과업”, 『근로자』, 9호(1975).
- 백능기, “당 일군은 경제 지식과 현대 과학기술을 알아야 한다”, 『근로자』, 5호(1978).
- 백재욱,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단계에

- 서 발생한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근로자』, 2호(1980).
-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심형일, “사회주의적 법 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5호(1977).
- 엄원석, “당 사업과 경제사업의 옳은 결합”, 『근로자』, 2호(1980).
- 오형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 이론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운영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 『근로자』, 3호(1978).
- 전영락,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 혁명에 대한 당의 혁명적 영도를 실현하는 위대한 운동”, 『근로자』, 4호(1976).
- 정동익, “청산리 방법으로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살며 일하자”, 『근로자』, 3호(1976).
- 정필선,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에 맞게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 문헌”, 『근로자』, 7호(1975).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역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조충련, 『김정일 장군 력사』(동경: 조충련, 1994).
- 편집국,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근로자』, 4호(1968).
- ,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는 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본분”, 『근로자』, 1호(1977).
- ,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 노선”, 『근로자』, 5호(1977).
- ,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 나가는 전투적인 당”, 『근로자』, 9호(1975).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 위업”, 『근로자』, 4호(1974).
- ,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 다하는 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 『근로자』, 5·6호(1974).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자”, 『근로자』, 7호(1974).
- ,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알곡 8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서자”, 『근로자』, 2호(1975).
-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시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근로자』 10호(1975).

- ,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자”, 『근로자』 11호(1974).
 - , “사상전은 사상 분야에서의 전격전, 집중 공세, 섬멸전”, 『근로자』, 5·6호(1974).
 - , “경제선동은 사회주의 대건설에 대중을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위력한 수단”, 『근로자』, 7호(1974).
 - , “우리 당은 불패의 위력과 영도력을 지닌 위대한 당”, 『근로자』, 2호(1980).
 -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 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근로자』, 9호(1975).
 - ,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 혁명의 기치 밑에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 『근로자』, 3호(1975).
 - , “당 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자”, 『근로자』, 3호(1977).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근로자』, 1호(1976).
 - , “3대 혁명 노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3호(1978).
 - ,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 혁명의 기치 밑에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 『근로자』, 3호(1975).
- 평양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 약력』(평양: 평양출판사, 1996).
- 현명준, “전당을 간부화하는 것은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의 필수적 요구”, 『근로자』, 1호(1975).

<2차 자료>

-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정치의 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 사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 기반: 그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서울: 동화연구소, 1991).
- 스즈키 마사유키,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 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서울 : 중앙일보사, 1994).
최주환,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 장악”, 『월간WIN』, 6월호(1996).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Kim Jong Il's Succession System and the Politics of "Cohesion"

Tae Seob Lee(Inje Univ.)

In the 1970s, the single most important political event in North Korea was the appearance of Kim Jong Il. He is known to have established and consolidate his succession system throughout North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army ever since he was chosen as the legitimate successor to his father Kim Il Sung in February 1974. Kim Jong Il's succession system was built emphasizing the two major pillars of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such a way that he first consolidated his leadership over the party organization, the single supreme power-holder in North Korea, proceeded to strengthen the party's leadership over the whole society, and finally broadened his leadership base into the state organizations and the army through the party organizations.

Kim Jong Il's succession system has been quite successfully established although there may have been some ups and downs. The entire process of building the succession system in the 1970s also involved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most important national goal, the

institutional completion of the “Suryong System”. North Korea has always explained that its unique Suryong System is designed to promote unity and cohesion in politics. Thus,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is Kim Jong Il’s succession system is also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and succession of this unity and cohesion. The politics of unity and cohesion is the core spirit that North Korea has pursued throughout its history.

Such unity and cohesion were secured only by unity in ideology and activities based on monolithic leadership. This was achieved through critical control over ideology, organization and norms. Especially, North Korea increasingly strengthened its control over organizations and norms in the 1970s. This resulted in the thorough organization of all activities and lives encompassing the social and personal spheres, with the help of strong control over rules and norms. This was aimed at the complete organization of the whole society, i.e., organizational socialism. While institutionalizing North Korea’s Suryong System in the 1970s, Kim Jong Il’s succession system was consolidated by organizing the whole society and through the centralized grip over socialist norms.

Therefore, all activities and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ere thoroughly led by strict rules and norms, as the Suryong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and its leader’s succession process was established during the 1970s. From this perspective, the complete 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n society was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its social system and the basic frame has remained largely intact until now. Finally, th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ystem affected by the

emergence of Kim Jong Il in the 1970s have shaped the prototyp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system.

Key Words : North Korea, Kim Il Sung, Kim Jong Il, Suryong System, Succession system,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unity and cohesion